

천마인재학부
정책과학전공 09학번
나경아

1. 시작하면서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저희 천마인재학부의 후배거나 아니면 회계사 공부를 갓 시작해 의욕에 넘쳐있는 분일 것 같네요. 아니면 공부 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모르겠어서 합격수기를 찾아보고 있는 분일 수도 있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천마인재학부 09학번의 나경아라고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21살 때 공부를 시작하여 적지 않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하였고 올해 2015년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저는 12년도에 1차를 처음으로 합격하였으나 13년도 2차 시험에 유예생으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도전하여 14년도에 1차를 합격하였고 그해 동차를 치고 15년에 드디어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합격한 사람들이 몇 명 되는데 아마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나름 이것저것 경험이 있습니다. 앞에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를 읽어보니 다들 노하우나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적으셨더라고요 저도 제 나름의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2. 마음가짐

일단 공부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만큼 이 시험이 합격하기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일, 이년정도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순진하게 곧이곧대로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정말 열심히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물론 가능한 얘이지요. 하지만 길게는 3~4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입해야하는 시험입니다. 특히나 우리 과 후배 분들의 경우는 남들에 비해 이른 나이에 시험공부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20대 초반에 남들과 달리 하루에 8시간 넘게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이고 이때까지 합격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입니다.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 이외의 것들이 잔뜩 있죠. 하지만 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짧게 끝내려면 위의 것들은 잠시 뒤로 미뤄둬야 합니다. 이게 자신 없다면 저는 오히려 일찍 공부를 시작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고 나서 맘 잡고 공부를 시작한다면 그게 오히려 일찍 공부를 시작하지만 공부에 몰입하지 못하는 것 보다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도 봤고요. 시험공부를 일찍 시작한다고 모두가 일찍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

라 다 다르므로 잘 고민해 보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3. 공부이야기

< 1차 시험 >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차 시험은 아시다시피 객관식이고 과목 수가 많고, 몇 해 전만 해도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 보장되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상위에서부터 최종 합격자수의 2배수만 뽑습니다. 예전에는 평균 60점을 맞추는 식의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신 없는 과목의 점수는 과락이 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자신 있는 과목을 잘 준비해서 고득점을 맞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평균 60점을 맞추는 식의 공부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1차 시험 합격이 예측가능하기에 더더욱 열심히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1차 시험을 총 세 번을 봤습니다. 11년도, 12년도, 14년도입니다. 11년도에는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합격점수와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14년도에는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세 번의 시험을 치고나서 분석을 해보니 처음 11년도의 경우에는 재무회계 실력이 부족했었습니다. 사실 재무회계란 과목이 이 공부를 시작하면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과목이기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가 겨우 과락을 면하게 되는 정도로 낮은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재무회계는 쉬워 보이지만 공부할수록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목 중에 쉬운 게 어디 있겠나만은 재무회계를 소홀히 할 경우 1차 합격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가 1차뿐만 아니라 2차 시험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의 경우는 재무회계에서 고득점을 이루어두면 총점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2차 시험 때가 되면 아무래도 재무회계 이외의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재무회계 실력을 탄탄히 쌓아 두셔야 합니다. 저는 재무회계는 김현식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희때 물론 유명했던 강사이기도 했었고 기초를 쌓고 문제에 적응해 나가기에는 좋은 강의법을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김현식으로 공부를 하다가 15년도 2차 재무회계 유예 때는 김재호 선생님의 모의고사 연습서를 스터디로 풀어 보았습니다. 강의는 들어보지 않았습지만 김재호 선생님의 교재 스타일은 실전문제에 가깝게요 최근 시험문제와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져있었습니다. 저는 기초는 김현식 선생님 강의를 들으며 탄탄히 하고 마지막에 시험 치기 직전에 김재호 선생님의 책으로 문제유형과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체험해봤습니다. 어느 강사분이 더 좋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강사를 결정하셨으면 굳이 강사를 바꿔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현식 책만 봐서 합격한 사람도 있고 김재호 책만 봐서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합격을 하지 못하는 게 강사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재무회계만큼 중요한 것이 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무회계와 달리 세법은 처음부터 수험생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과목입니다. 저는 그나마 세법을 좋아했고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오는 편이지만 제 주변에는 오히려 저와 반대로 제가 못하는 재무관리를 잘하고 세법을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의 스타일이기에 제가 하는 공부 방법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처음 세법을 시작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간단한 간주임대로 산식이 외워지지 않아서 나는 바보인가 라는 생각도 했을 정도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부분은 처음 들으면 힘들지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개념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세법은 무조건 많이 보고 강의를 자주 듣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름길을 찾기보다는 정도를 걷는 것이 가장 적합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부터 패스하고 넘어가는 버릇을 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세법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을 패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시험에 급해지게 되면 더더욱 안 보게 되죠. 시험에 몇 문제 안 나오니까 괜찮아. 시간투입대비 산출이 별로야 라는 식으로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나 상속세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보면 부담스럽죠. 물론 외울 것도 많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어느 정도 기본만 돼 있다면 점수를 챙기기 쉽습니다. 이 시험이 1차에서 끝나는 시험이 아니고 2차까지 있는 시험입니다. 2차에서 이 부분의 난이도는 크게 차이가 나질 않으니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준비하는 게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 기초 실력이 된다면 저는 세무회계연습을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새는 인강에 1.5차라던가 심화라는 식으로 1차생을 위한 연습서 강의를 있습니다. 세무회계연습서로 그 강의를 들으면 세법의 틀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세법의 파트별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면 그 파트들을 크게 확장시켜보거나 아니면 다른 파트들과의 혼합 문제를 보아 큰 틀을 보면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소득세나 부가세의 경우 그 시너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무회계연습서를 공부할 때는 문제를 맞히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이런 문제들은 어떤 순서로 풀어야하며 이 문제의 포인트와 함정이 무엇인지를 배워간다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답을 보며 이해하면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서를 처음 풀어봤을 때 문제를 맞히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리고 2차시험이라는 것이 부분점수를 준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다 맞추지 못하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연습서로 공부를 하다가 1차 시험이 다가올 때 좀 다시 객관식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예전에 비해 훨씬 문제가 잘 풀려 자신감도 생기실 것입니다.

재무관리, 참 어려운 과목이죠. 근데 오히려 어떤 분은 어렵지만 공부하는 재미가 있는 과목이라고 말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재무관리는 4년 넘게 공부를 하면서 수험기간의 후반으로 가면서 가장 재미를 느낀 과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재무관리에 대해

이해를 할 수도 그래도 더더욱 흥미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부담스러운 과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1차를 칠 때만 하더라도 평균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었기에 재무관리를 버리고 일반 경영학에 비중을 두겠다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짝은 문제도 좀 맞고 일반 경영학을 어느 정도 잘 쳤기에 다행히 그 해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차에서는 재무관리가 단독과목으로 시험을 쳐야하는데 기본강의 한번 들은 이후로 포기를 했었으니 아는 게 없었죠. 그래서 1차를 치고 4개월 동안 기초를 제대로 쌓지도 못하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결과는 처참했죠. 그 이후 유예 때도 재무관리를 공부했으나 만족스러운 성적을 내지 못했고 결국 최종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목을 아예 포기한다는 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무서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다시 1차부터 준비했을 때는 기존에 공부를 계속 해왔었고 드디어 재무관리라는 과목에 자신이 붙기 시작하면서 흥미도 같이 늘었습니다. 재무관리란 과목은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그 매력을 느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금방 재밌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재무관리 성적이 보다 잘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재무관리에 투입하는 시간을 늘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학의 정석을 접했을 때가 생각합니다. 처음 그 책을 봤을 때 이게 뭔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생각만 났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다니던 종합학원 선생님께서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베끼고 외우고 그것을 반복하다보면 어느새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무관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돼도 어쩔 수 없이 일단 패턴을 외우고 강의를 듣고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이해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노력밖에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이영우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 듣고 나서도 이해가 전혀 되질 않았는데 다음번에는 김종길 선생님의 기본강의로 갈아탔었습니다. 저는 김종길 선생님의 강의를 훨씬 잘 이해했었습니다. 두 분의 강의 스타일이 다른데, 김종길 선생님은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시키시는 스타일이시고 이영우 선생님은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스타일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관적인 이해를 좋아하는 편이라 김종길 선생님의 강의를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차 시험까지 갈려면 이영우 강의를 듣는 게 유리하다거나 최근 이영우 선생님의 단기특강 적중률이 높다고 하지만 저는 이영우 강의를 듣지 않고 김종길 강의만으로도 2차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적중률 또한 매년 달라졌고요. 자신이 선택한 강사에 대해서 그것만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합격 못하는 이유를 강사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이제 남은 과목은 일명 사람들이 암기과목이라고 하는 경제학, 상법, 경영학이 남았네요. 2차 시험에는 없고 1차 시험에는 있는 과목들이죠. 하지만 세 과목 다 시험 공부할 분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경제학과 상법은 암기과목이라고 하지만 이해도 필요한 과목입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평이하게 준비했던 과목입니다. 경영학의 경우, 처음 1차를 합격했을 때는 기본 강의와 객관식 강의를 듣고 합격했었고 두 번째로 1차를 합격했을 때는 그냥 객관식 강의만을 듣고 합격했습니다. 경영학을 공부할 때에 저는 객관식 책의 지문을 잘 봐두었습니다. 사실 일반 경영학이 이외의 신 이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준비를 할 수가 없다고 보

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시험에 꾸준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객관식 책만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됩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나왔던 지문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이 오답인지 어떻게 함정이 나오는지를 잘 주의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시간이 된다면 경영학의 경우 학원에서 해주는 단기특강들을 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비록 시간이 부담스러워 듣지 못했지만 요새는 단기특강도 인터넷 강의로 올려주어 훨씬 듣기가 편할 것입니다. 주말에 공부가 하기 싫은데 해야할 때 한번쯤 듣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경제학의 경우는 생각보다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입니다. 게다가 시험문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요새 들어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더군요. 미시와 거시가 있는데 미시는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반면에 시험에서는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 거시의 경우는 공부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데 실전 시험에서는 점수를 얻기 쉬운 편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거시 공부를 하시는데 소홀히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경제학은 이론은 정병렬의 기본서로 준비하였고 문제는 김판기 선생님의 다이어트 경제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다이어트 경제학의 문제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익숙해진다면 시험에서 60점 이상은 거뜬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암기과목이라고 너무 늦게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시간이 촉박하고 하루에 봐야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름방학 즈음에 경제학 이론을 다져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은 일단 기본서 만으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강의 수도 어마어마하죠. 상법에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김혁봉 선생님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 1차나 나중 1차나 김혁봉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최근 들어 강의력이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법은 기본 강의만 듣고 나면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를 2,3회독 정도 보고 기본서의 문제들을 풀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강의노트가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그것만 들고 가도 될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혁봉의 상법전 말고 이상수의 상법전을 샀습니다. 이상수 상법전은 안에 객관식 지문에 대한 OX문제가 부수적으로 수록되어있어 막판에 잘 모르는 부분만 골라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저는 기본서에 수록된 문제만으로는 뭔가 아쉬움을 느껴서 따로 이상수의 상법 진도별 모의고사를 구매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 책도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기본서를 혼자서 복습하다보면 약간 루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책만 읽고 있으면 지루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저는 형광펜을 사서 김혁봉 쌤이 강의에서 줄 쳐주신 부분이라 별개로 혼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줄을 그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덜 지루기도 하고 하루에 100페이지 읽기 목표를 세우는 식으로 그런 지루함을 떨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2차 시험 >

1차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을 정말정말 기쁜 일입니다. 특히나 처음 합격하게 된다면 굉장히 의욕에 불타오르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고 일주일 쉬는 것조차도 근질근질해서 빨리 2차 공부를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교재도 배송되지 않았고 강의조차 올라오지 않았는데 공부하겠다고 의욕에 넘쳤던 그 때가 생각나네요. 여러분도 일차를 합격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새로운 시작에 설레죠. 의욕 넘치는 그 순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때에 열심히 해둬야 합니다. 사실 2차 시험기간은 봄이 끼여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미 1차 시험을 위해 달려왔기에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날씨는 점차 따뜻해져서 놀러가기가 좋죠. 게다가 학교는 축제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 육체적인 것 보다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 시기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자는 마음으로, 시험 끝나면 하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공부 안 되어 놓고 있을 때 조금만 더 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나보니 이 시험은 사실 누가 더 잘 버티냐도 인 것 같습니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다른 것에 대한 유혹을 보다 더 잘 버텼다면 합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무뎠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 비해 감정이복이 덜 한 편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시험에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시험이 다가오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밥도 잘 못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만의 감정컨트롤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앉아 있고 해서 나중에는 다리도 붓고 몸도 너무 빠근해서 고시원에서 하는 요가를 신청해서 잠깐씩 몸을 풀고는 했습니다. 기분 전환으로 운동을 해도 좋고 아니면 한 번씩 학교 앞에 나가서 동전 노래방을 간다거나 혼자서 영화를 보고 온다거나 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건 기분전환을 위한 것일 뿐 주객전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걸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공부 얘기를 해보자면 2차 시험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4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차시기에 적어도 2과목을 붙여놔야지 유예 때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동차 때는 1과목을 부분 합격하여서 유예시기에 4과목을 공부하였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동차 때 열심히 해서 2과목 이상을 붙여놓으시길 바랍니다. 4개월 동안 5과목을 다 공부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보면 쉬운 것이 아닙니다. 2차 과목들은 전부 1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도 10분이기 때문에 몇 문제 풀지도 않았는데 하루가 다 가 있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이 연습지를 쓰는 연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말로 내가 5과목 다 챙겨갈 자신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3개나 4개의 과목만 챙겨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과목의 시간이 절약된 만큼 다른 과목에 많이 투입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공부시간이 줄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취약 과목과 자신 있는 과목을 잘 파악하셔서 전략을 짜보시길 바랍니다.

2차와 1차 시험에서 차이나는 과목은 원가와 재무관리, 그리고 아예 새로운 감사라는 과목입니

다. 1차 시험에서의 원가는 재무회계에서 시간분배에 쫓겨 아예 못 풀거나 아니면 몇 문제 못 푸는 그런 과목이었을 것입니다. 객관식 책만 봐도 할만했었고요. 하지만 2차 연습서 책을 보면 일단 그 두께부터 놀라셨을 것입니다. 양부터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책에서 반쯤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유예생들도 쉽게 못 푸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동차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차 강의를 들어보면 강사분도 다 풀어보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실 원가는 항상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 합격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을 풀고 기본적인 문제들만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는다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실제로 동차생들의 원가부분합격률은 높은 편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못 풀었다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15년도 유예에서 원가가 남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본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는 풀었으나, 기본적인 문제를 실수했었고 다른 분은 어려운 문제는 손도 못 댔으나 기본적인 문제를 실수 없이 풀었습니다. 시험 결과를 보니 오히려 저 보다는 그 분의 원가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2차 시험은 나중에 채점하면서 어느 정도 점수 배점 조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 모든 과목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회계감사. 감사 과목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과목입니다. 제가 1차생 때는 회계감사를 공부하는 2차생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는 2차 시험의 상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권오상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회계사가 되고나면 해야 할 일들을 배우는 것이며 권오상 쌤이 현업에서 겪으시며 있었던 일들을 톡톡이 사례로 얘기 해 주시기 때문에 집중도 잘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외울 내용이 많다는 점이지요. 사실 강의 들을 때는 좋지만 복습은 힘이 듭니다. 감사는 복습을 얼마나 제때제때 하느냐, 그리고 틈날 때 마다 들여다보느냐 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는 답안지를 쓸 때 해설서와 똑같이 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답안지를 채점해주는 스터디를 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점수를 주기가 애매한 것 같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감사 시험에서 중요한 점은 기준을 잘 외워서 잘 쓰는 것입니다. 사실 응용문제는 짧게 공부를 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잘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 역시 기본적인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마치면서

저도 모르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았나 봅니다. 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겪었던 점들, 제가 공부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위주로 적어보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제가 바라던 회계사가 되어 서울 삼정회계법인에서 일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합격하고가 끝이었음 좋겠지만 합격하고도 새로운 길과 새로운 과제가 앞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난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보다 자신

감이 생길 것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과 후배님들은 행정실에서 제 연락처를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기꺼이 답장 드리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